

프로폴리스 과학포럼 10월 대전 개최

세계규모의 프로폴리스 포럼이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대전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처음으로 개최된다.

이를 위해 6월5일 학계, 업계, 관련단체 등 관계자 11명으로 준비위원회(위원장 조청원 관장/국립중앙과학관)를 구성해 회의를 갖고 국내 처음으로 대전에서 국제 프로폴리스 학술포럼을 개최하기로 했다.

천연 항생제로 각광받고 있는 프로폴리스의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일본과 중국은 이미 세계대회나 학술대회를 적극 유치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FTA(자유무역협정), WTO(세계무역기구) 등 세계경제의 개방화 물결이 국내 4만여 양봉농가에도 큰 압력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국내 양봉농가의 양봉산물인 벌꿀, 프로폴리스, 화분, 로얄제리의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무한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바이오프로폴리스연구회(회장 이승완)가 6회에 걸쳐 국내 <자연의학 심포지엄>을 개최하면서 벌꿀, 프로폴리스의 가공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상품 연구개발을 위한 과학화를 추진하고 있다.

<화학저널 2007/06/19>